SRI Brief

수원시정연구원
제 153 호
2026.11.24.(火)

수원시민의 생활비 부담과 사회적 관계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슬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이민윤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요 약

생활비 부담에 따른 소비 축소가 사회적 관계 및 골목상권 위축으로 연결



경제적 부담과 관계 유지 방식, 소득·세대·가구형태별 격차 뚜렷

- 저소득층의 사회적 만남 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소득층의 만남 감소율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악화가 두드러짐

정책방향

경제적 취약집단의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월세·저소득·노년층 등 생활비 부담이 높은 집단을 우선 지원하여 가계 부담 완화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여력 확보

사회적 교류 부담 완화 및 공공 문화시설·골목상권 연계 강화

- 외식·여가·모임 등 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 부담을 낮추고, 문화시설 이용과 골목상권 소비를 연계하여 사회적 교류 활성화

기존 생활권 공공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세대·가구유형별 맞춤형 교류 지원 강화

- 도서관·지관서가·공원·주민센터·경로당 등 기존 생활권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대·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

1. 생활비 부담의 확산과 사회적 관계 위축

□ 미국 주요 도시, 생활비 부담 완화(Affordability)를 핵심 시정 의제로 설정하고, 제도·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정책 추진

○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은 주거·교통·보육·식비 등 분산된 민생 과제를 하나의 생활비 의제로 묶고, 공론화·재원 확보·성과 검증을 거쳐 제도적 성과로 연결[1)]

- **(뉴욕)** 주거·보육·교통·식료품비를 단일 생활비 문제로 통합,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 약 100만 호(전체 27%)의 1·2년 계약 임대료 동결 확정
- **(샌프란시스코)** AI 산업 호황에 따른 임대료 급등에 대응해 '임대료 비상상황'을 선언(2026.9.)하고, 3,000만 달러 규모 주거안정 패키지(바우처 만료 650가구 2,700만 달러, 퇴거 위기 400가구 법률지원 300만 달러)와 연 10% 임대료 인상 상한·퇴거 유예를 통해 세입자 보호 입법 추진
- **(필라델피아)** 주택 3만 호 신축·보존·수리 계획(H.O.M.E.)을 권역별 타운홀로 공론화한 뒤 시의회 승인(총 8억 달러 채권 권한)을 거쳐 1차 4억 달러 주택 채권을 발행(2026.3.)하고, 2026년 9월 기준 목표의 절반 이상을 조기 진척
- **(보스턴)** 무료 버스 시범사업으로 승객 증가와 가계 교통비 절감 효과를 검증한 뒤, 사업 연장에 이어 시 전역 5개 신규 무료 노선 확대(2026.10.)로 정책을 발전

□ 생활비 부담은 가계의 소비 여력 감소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지역사회 활력을 제약하는 문제로 확대

○ 필수생활비 상승은 외식·여가·모임 등 선택적 지출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관계 유지와 지역 내 소비활동에 영향

- 주거·식비·교통비 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 외식·문화생활·친구 및 지인과의 모임 등 사회적 활동 관련 지출을 우선 축소
- 관계 유지 지출 감소는 사회적 만남과 교류 기회 축소로 이어지고, 동네 식당·카페 등 생활밀착형 상권의 소비 위축과도 연결될 우려
- OECD(2025)[2)]는 식당·카페 등 일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강조

○ 경제적 자원 부족은 개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 타운센드(Townsend, 1979)[3)]의 상대적 박탈 이론에 따르면, 외식·여가·경조사 등 관계 유지 지출의 부담이 개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한
- 무드와 욘손(Mood & Jonsson, 2016)[4)]은 스웨덴 종단자료 분석에서 빈곤·물질적 박탈이 사회적 관계,

1) 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2026.6.25.); The San Francisco Standard(2026.9.10.); City of Philadelphia, City Treasurer's Office(2026.3.26.); City of Boston(2026.6.10., 2026.10.11.)을 바탕으로 작성.
2) OECD(2025), Social Connections and Loneliness in OECD Countries, Chapter 5: Social Infrastructure and Digitalisation as Drivers of (Dis)connection
3) Townsend, P.(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Allen Lane and Penguin Books.
4) Mood, C., Jonsson, J. O.(2016), The social consequences of poverty: An empirical test on longitudinal data. Social Indicators

특히 친구·친척과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

- 따라서 생활비 부담 완화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지역사회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 과제로 접근 필요

□ 생활비 상승에 따른 만남·모임 비용 부담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관계 위축 가시화

○ 생활비 부담이 가계부를 넘어 '관계'까지 잠식,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는 고물가가 교제비용 축소로 연결

- (한국)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과 취업난 속에서 인간관계를 줄이는 '관계긴축'을 선택[5)]
  - 청년층의 49%가 최근 인간관계를 축소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41%)
- (일본) 2025년 1월 2인이상 가구의 교제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하락, 34세 이하 1인 근로자 가구의 소득 대비 교제 비율 2019년 2.2% → 2025년 1.3%[6)]
- (미국) Z세대·밀레니얼 1,000명 조사에서 44%가 비용 부담으로 주요 사교 행사 참석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42%는 연중 몇 달간 교제비 예산을 초과 지출[7)]
- (영국) 생활비 상승으로 35%가 사회생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 31%가 가족·친구와의 만남 감소, 40%가 친구와의 거리감, 48%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 증가[8)]
- (호주) 45~54세 중 주 1회 이상 친구·친척을 만나는 비율 39.6%, 생활비·주거비 부담과 시간 부족 등이 사회적 교류를 제약하는 요인[9)]

□ 사회적 관계 위축은 개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도시정책 과제로 부상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

- 세계보건기구(WHO, 2025)[10)]에 따르면,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외로움을 경험. 세계보건총회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첫 결의 채택
- OECD(2025)[11)]에 따르면, 외로움 경험률은 소득 하위 20%가 13%로 상위 20%(2%)보다 높아,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외로움의 불평등 확인
- 국가데이터처(2025)[12)]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인구는 21.2%, 급하게 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인구는 48.6%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취약성 확인

Research, 127, 633-652.

5) 매경이코노미(2026.9.11.), 만남까지 다이어트하다…20 대의 사는 법 관계긴축.

6) 매일경제(2026.09.11.), 「'프렌드플레이션'과 '관계긴축'」.

7) Ally Bank(2025.7.30.), New Ally Bank Survey Reveals the Hidden Financial Cost of Friendships, Ally Financial.

8) Which?.(2023. 11. 4.), How have people's social lives been impacted by the cost of living crisis?

9) ABC News(2025.10.27.), Cost-of-living crisis and 'weight of the world' means we're socialising less than ever.

10) WHO(2025a), Fostering Social Connection for Global Health: The Essential Role of Social Connection in Combating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Inequities in Health. Resolution WHA78.9.

11) OECD(2025), Social Connections and Lonelin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12) 국가데이터처(2025),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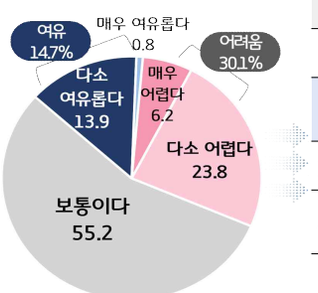
2. 경제적 형편과 생활비 부담 구조

□ 경제적 어려움, 저소득층·자영업자·노년층에서 두드러짐

○ 수원시민 3명 중 1명 경제적 어려움 체감, 저소득층·자영업자 부담 집중

- 수원시민 약 3명 중 1명(30.1%)은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여유롭다'는 응답(14.7%)보다 15.4%p 높게 나타남
  -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매우 여유롭다'는 응답의 약 7.8배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시민이 상대적으로 많음
  -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응답은 월 소득 200만 원 미만(46.2%), 자영업자(39.5%), 노년층(32.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여유롭다'는 응답은 월 소득 700만 원 이상(37.6%)에서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의 52.1%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39.5%가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해 소득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높게 나타난 집단으로 확인됨

<현재 경제적 형편>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한 집단의 특성별 분포>

(단위: %)

소득 구분	비율	직업 구분	비율	세대 구분	비율
소득없음	38.2	자영업자	39.5	청년	30.6
200만 원 미만	46.2	전업주부	35.9		
200~400만 원 미만	27.8	은퇴/무직	33.1	중장년	29.0
400~700만 원 미만	19.4	무급가족종사자	31.7		
700만 원 이상	13.0	취업준비생	30.4	노년	32.4

주: 직업은 상위 5개만 명시함.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질문: 현재 귀하의 경제적 형편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① 매우 어렵다~⑤ 매우 여유롭다)

□ 식비·주거비는 세대 공통의 부담이며, 생애주기에 따라 부담 항목 차이

○ 공통 부담은 식비·외식·카페(75.0%)와 주거비(55.0%)이며, 모든 세대에서 높게 나타남

- 세대별 응답률도 식비·외식·카페는 70.7~81.4%, 주거비는 52.7~55.5%로 모든 세대에서 높게 나타남

○ 청년층은 식비·교통비, 중장년층은 양육·교육비, 노년층은 의료비 부담이 두드러짐

- 청년층의 식비·외식·카페(81.4%)와 교통·차량비(48.9%) 응답률은 전체 응답률의 각각 1.1배, 1.4배임
- 중장년층은 자녀양육·돌봄비(33.3%)와 부채상환비(25.3%)가 전체 응답률의 각각 1.5배, 1.2배이며, 교육비도 24.1%로 나타남
- 노년층은 의료·건강관리비(47.6%)를 선택한 비율이 전체 응답률의 2.8배로,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남

○ 교제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노년층에서 두드러짐

- 교제비를 주요 생활비 항목으로 선택한 노년층은 18.2%로 세대 중 가장 높으며, 전체 응답률의 1.8배임

<세대별 월 생활비 비중>

(단위: %)



주1: 굵은 글씨는 세대 중 최고값,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주2: 기타 제외
질문: 현재 월 생활비 중 최대 비중 항목은 무엇입니까?(1~3순위 선택)(1~3순위를 합산한 결과 제시)

<세대별 비중이 큰 주요 생활비 항목>

구분	주요 항목(배율)	내용
청년	교통·차량 48.9%(1.4배), 식비 81.4%(1.1배)	외식·카페 동반 만남 비용→ 식사·카페·술자리 제약
중장년	자녀양육·돌봄 33.3%(1.5배), 부채상환 25.3%(1.2배)	고정 지출 증가→ 여가·동호회·지역활동 제약
노년	의료 47.6%(2.8배), 교제비 18.2%(1.8배)	경조사비 부담→ 만남 감소 사유로 직접 작동

주1: 기타 제외, 배율은 해당 세대 응답률÷전체 응답률로 산출
주2: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질문: 현재 월 생활비 중 최대 비중 항목은 무엇입니까?(1~3순위 선택, 1~3순위를 합산한 결과 제시)

□ 당장의 생활비보다 비상자금 마련과 미래 대비에 더 큰 부담

○ 현재 생활비보다 저축·긴급자금·향후 소득에 대한 부담이 더 높음

- 저축·투자 축소는 57.0점, 긴급자금 마련의 어려움은 55.1점, 향후 소득 불안은 53.5점으로, 필수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4.9점)보다 8.6~12.1점 높음
- 당장의 생활비 마련보다 저축·투자 여력 감소와 비상시 자금 확보,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이 더 크게 나타남

○ 필수생활비 부담은 노년층, 부채 상환 부담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높음

- 노년층은 부채 상환 부담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세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필수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은 청년(42.7점) → 중장년(45.2점) → 노년(49.5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함
- 부채 상환 부담만 중장년층(53.0점)이 세대 중 가장 높음

<세대별 생활비 상황 인식>

(단위: 100점 만점(5점 척도 환산))

구분	필수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긴급자금 마련의 어려움	향후 생활비 및 소득 불안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저축 및 투자 비중 축소
전체	44.9	55.1	53.5	50.3	57.0
청년	42.7	53.9	53.1	45.9	56.8
중장년	45.2	55.3	53.3	53.0	57.1
노년	49.5	57.3	55.4	51.7	57.3

주: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질문: 최근 생활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❶ 월세 가구는 생활비 부담과 지출 축소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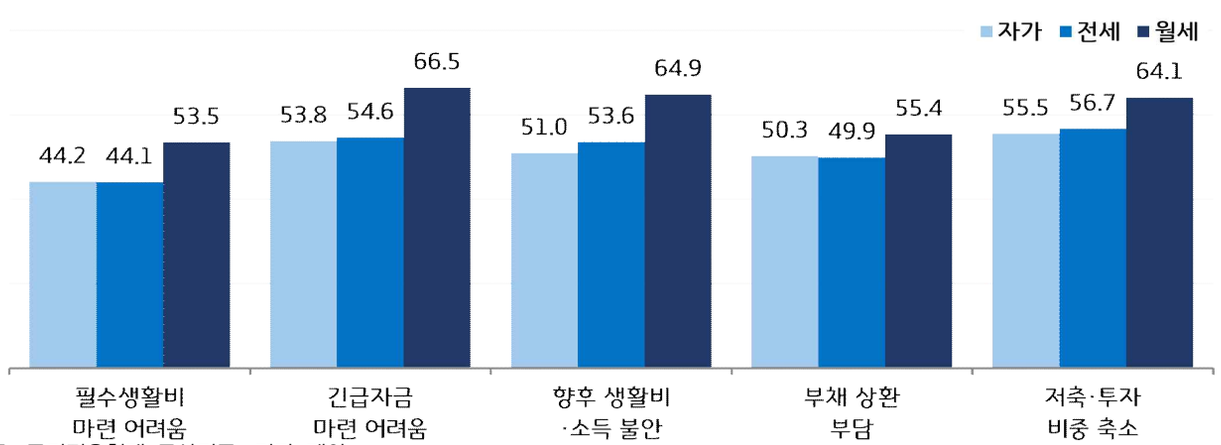
- 월세 가구는 5개 생활비 상황 인식 지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며, 긴급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향후 소득 불안은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각각 최대 12.7점, 13.9점의 차이가 나타남
-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응답은 월세 가구의 46.2%로 절반에 가까우며, 자가(26.9%)보다 19.3%p, 전세(30.7%)보다 15.5%p 높음
- 최근 1년간 지출을 줄였거나 줄이려 노력한 비율은 94.5%로 자가(79.3%)보다 15.2%p, 전세(87.7%)보다 6.8%p 높음

❷ 전세 가구는 생활비 부담 인식에 비해 지출 축소 경험과 주거비 지원 수요가 높음

- 전세 가구의 필수생활비 마련 어려움은 44.1점으로 자가(44.2점)와 유사하게 나타남
- 반면, 최근 1년간 지출 축소 경험은 전세 가구가 87.7%로 자가(79.3%)보다 8.4%p 높으며, 주거비 지원 정책 수요도 전세(45.5%)가 자가(27.0%)보다 18.5%p 높음
- 주거점유형태별 생활비 부담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점유형태만으로 경제적 상황을 해석하기보다 지출 조정 경험과 정책 수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월세 가구는 생활비 부담과 지출 축소 경험, 주거비 지원 수요가 모두 가장 높아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집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

<주거점유형태별 생활비 상황 인식>

(단위: 100점 만점(5점 척도 환산))



주: 주거점유형태 무상거주, 기타 제외
질문: 최근 생활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주거점유형태별 생활비 부담 및 정책 수요>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최대 격차
경제적 형편 '어렵다'	26.9%	30.7%	46.2%	19.3%p
최근 1년 지출 축소 경험 '있다'	79.3%	87.7%	94.5%	15.2%p
주거비 지원 정책 수요	27.0%	45.5%	47.6%	20.6%p

주1: 주거점유형태 무상거주, 기타 제외
주2: 경제적 형편 '어렵다'= ① 매우 어렵다 + ② 다소 어렵다
질문: 현재 귀하의 경제적 형편은 전반적으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⑤ 매우 여유롭다)
최근 1년간 생활비 부담으로 지출을 줄였거나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순위 선택, 1,2순위를 합산한 결과 제시)

□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 부담은 줄지만, 활동 참여 제약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듦

○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은 큰 차이로 감소하지만, 활동 참여 제약은 완만하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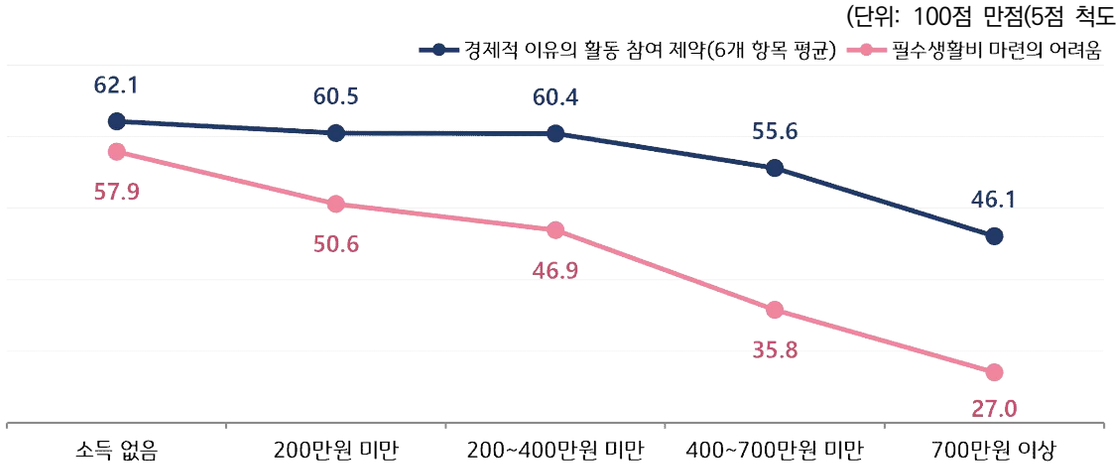
- 필수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은 무소득 집단에서 57.9점,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에서 27.0점으로 30.9점 낮아지는 반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활동 참여 제약은 62.1점에서 46.1점으로 16.0점 낮아지는 데 그침
- 월 소득 200~400만 원 미만 집단과 400~700만 원 미만 집단을 비교하면, 필수생활비 마련의 어려움은 11.1점 낮아지지만 활동 참여 제약은 4.8점 낮아지는 데 그침

○ 생활비 마련보다 활동 참여에서 느끼는 경제적 제약이 모든 소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활동 참여 제약과 필수생활비 마련의 어려움 간 점수 차이는 무소득 집단에서 4.2점이며, 소득구간이 높아지면서 9.9점, 13.5점, 19.8점으로 커짐.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에서도 19.1점의 차이가 나타남
-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도 활동 참여 제약 점수가 필수생활비 마련의 어려움보다 높아,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더라도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비용 부담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경제적 제약이 저소득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소득계층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생활비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활동 참여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소득구간별 생활비 부담과 활동 제약>

(단위: 100점 만점(5점 척도 환산))



주: 활동 제약= 식사·카페, 축의·조의·선물, 동호회·모임, 문화·여가, 가족·친적 모임, 지역행사·자원봉사 6개 항목 평균
질문: 최근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고 싶었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습니까?(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최근 생활비 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 월 소득 700만 원 미만 가구의 지출 축소 경험은 유사, 소득·연령별로는 사유에 차이

○ 월 소득 700만 원 미만에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음

- 지출 축소 경험률은 무소득 집단에서 87.7%로 전 소득 계층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200~400만 원 미만(85.3%), 200만 원 미만(83.6%), 400~700만 원 미만(82.5%) 순으로 나타남. 특히 월 소득 700만 원 미만의 모든 집단에서 80%를 상회하는 비율이 지출을 줄였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64.0%로 400~700만 원 미만 집단 대비 18.5%p 낮아졌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과반수가 지출 축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 낮을수록 만남 감소와 활동 참여 제약이 크게 나타남

- 오프라인 만남 감소 응답률은 무소득 70.6%, 200만 원 미만 69.5%, 200~400만 원 미만 62.3%, 400~700만 원 미만 61.0%, 700만 원 이상 53.4%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게 나타남
- 경제적 이유로 인한 활동 참여 제약은 무소득 집단에서 62.1점으로 소득 집단 중 가장 높고,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에서 46.1점으로 가장 낮아 두 집단 간 차이는 16.0점임
- 모든 소득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 만남 감소를 경험했으며, 저소득 집단에서 감소 비율과 활동 참여 제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소득구간별 관계 위축 지표>

구분	소득 없음	2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700만 원 미만	700만원 이상
지출 축소 경험(%)	87.7	83.6	85.3	82.5	64.0
오프라인 만남 감소(%)	70.6	69.5	62.3	61.0	53.4
활동 참여 제약(점)	62.1	60.5	60.4	55.6	46.1

주: 오프라인 만남 감소= '①크게+②다소 줄었다'. 활동 제약= 식사·카페, 축의·조의·선물, 동호회·모임, 문화·여가, 가족·친척 모임, 지역행사·자원봉사 6개 항목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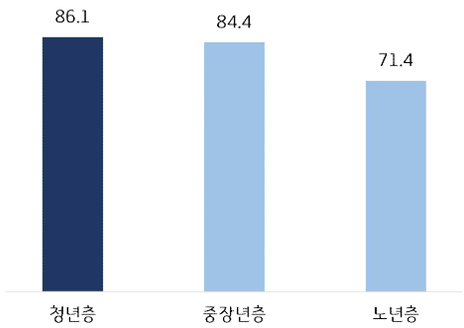
질문: 최근 1년간 생활비 부담으로 지출을 줄였거나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최근 1년간 비용 부담 때문에 친구·지인과의 오프라인 만남 또는 모임 횟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① 크게 줄었다~④ 늘었다, ⑤ 해당없음)
최근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고 싶었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습니까?(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 수원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지출 축소를 경험했으며, 청년·중장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1년간 지출을 줄였거나 줄이려 노력한 시민은 83.1%이며, 청년층(86.1%), 중장년층(84.4%), 노년층(71.4%) 순으로 나타남
- 전 세대에서 외식·카페 지출을 가장 많이 줄였으며, 청년층은 외식·여가, 중장년층은 외식·의류, 노년층은 모임·경조사 관련 지출 축소가 특징적
  - **(청년층)** 외식·카페(76.2%), 문화·여가·여행(63.2%), 친구·지인 모임(56.2%) 순으로, 외식·카페와 문화·여가 지출 축소 비율이 세대 중 가장 높음
  - **(중장년층)** 외식·카페(72.7%), 문화·여가·여행(57.6%), 친구·지인 모임(39.9%) 순이며, 의류·미용(33.5%) 지출 축소 비율이 세대 중 가장 높음
  - **(노년층)** 외식·카페(70.7%) 다음으로 친구·지인 모임(52.8%) 지출 축소가 높으며, 경조사·선물·회비(27.4%)도 다른 세대보다 높아 관계 유지 관련 지출 축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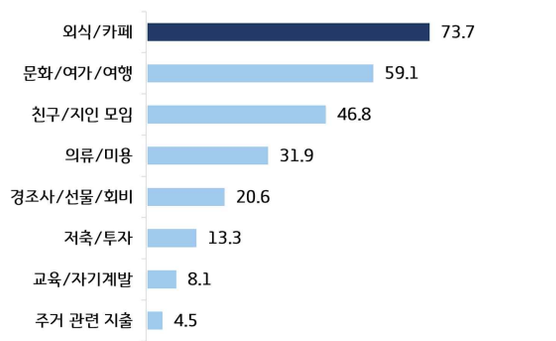
<세대별 최근 1년 지출 축소 경험>

(단위: %)



<우선 축소한 지출 항목>

(단위: %)



주1: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주2: 우선 축소한 지출 항목 중 '기타' 제외
질문: 최근 1년간 생활비 부담으로 지출을 줄였거나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n=958)
최근 1년간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였거나 줄이려 노력한 항목은 무엇입니까?(최대 3개 선택)(선택값 합산한 결과 제시)(n=797)

❶ 필수적 지출보다 외식·여가·모임 등 선택적 소비를 우선 축소하는 경향

- 지출 축소 경험자가 우선 줄인 항목은 외식·카페(73.7%), 문화·여가·여행(59.1%), 친구·지인 모임(46.8%) 순으로,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지출이 상위 항목을 차지
- 반면 주거(4.5%), 교육(8.1%), 저축(13.3%)은 상대적으로 낮아, 조정하기 어려운 필수적 지출보다 외식·여가 등 선택적 소비를 우선 줄이는 경향이 나타남

3.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활동 참여 제약

□ 시민 절반이 관계 유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학생·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❶ 관계 유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50.8%로, '부담되지 않는다'(14.4%)의 약 3.5배

- '매우 부담된다'는 7.0%, '다소 부담된다'는 43.8%이며, '보통'은 34.8%임
- 부담 응답률은 학생 76.9%,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58.9%, 중장년층 52.2%로, 전체 응답률보다 각각 26.1%p, 8.1%p, 1.4%p 높음

□ 경제적 이유로 인한 활동 참여 제약은 문화·공연·여행과 동호회·모임에서 높게 나타남

❶ 활동 참여 제약은 문화·공연·여행이 63.4점으로 가장 높고, 가족·친척 모임이 55.0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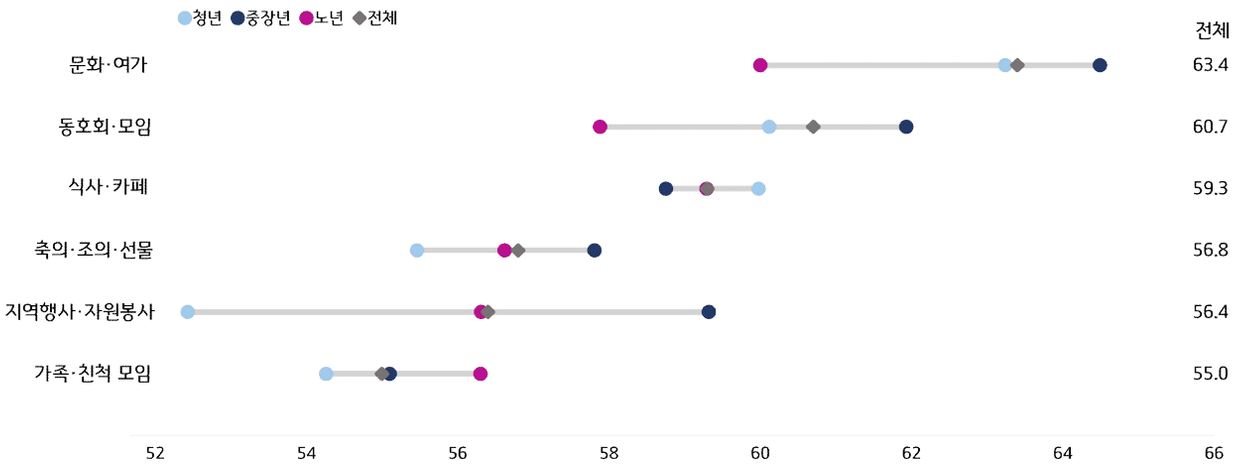
- 동호회·모임 60.7점, 식사·카페 59.3점, 축의·조의 56.8점, 지역행사 56.4점 순이며, 최고 항목과 최저 항목의 차이는 8.4점임

❶ 중장년층은 6개 활동 중 4개 항목에서 세대 간 참여 제약 점수가 가장 높음

- 청년층은 문화·공연·여행 63.2점, 동호회·모임 60.1점, 식사·카페 60.0점 순으로 나타남. 지역행사는 52.4점으로 참여 제약 점수가 세대 중 가장 낮음
- 중장년층은 문화·공연·여행 64.5점, 동호회·모임 61.9점, 지역행사 59.3점으로 나타남
- 노년층은 문화·공연·여행 60.0점, 식사·카페 59.3점 순이며, 가족·친척 모임은 56.3점으로 세대 중 가장 높음

<항목별·세대별 경제적 이유의 참여 제약>

(단위: 100점 만점(5점 척도 환산))



주: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질문: 최근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고 싶었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습니까?(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세대별 활동 참여 제약 항목>

구분	활동 참여 제약 항목	내용
청년	문화·여가 63.2점, 동호회·모임 60.1점, 식사·카페 60.0점	지역행사 제약 최저(52.4점) → 원래 참여가 적어 제약 체감이 낮을 가능성
중장년	문화·여가 64.5점, 동호회·모임 61.9점, 지역행사·자원봉사 59.3점	6개 중 4개 항목에서 세대 간 최고 → 고정 지출 압박으로 사회참여 전반 위축
노년	문화·여가 60.0점, 식사·카페 59.3점	가족·친척 모임(56.3점)만 세대 간 최고 →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제약 체감

주: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 1인가구는 관계 유지 부담이 높으며, 비용이 적게 드는 만남 방식을 더 많이 선택

○ 1인가구는 활동 참여 제약과 관계 유지 비용 부담이 다인가구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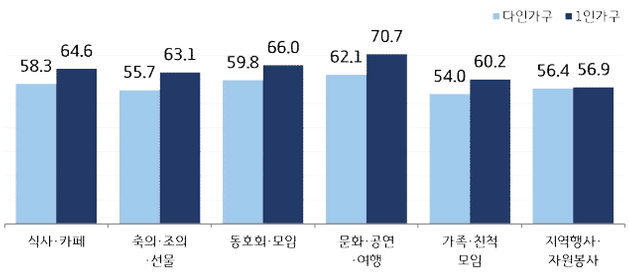
- 1인가구는 모든 활동에서 다인가구보다 참여 제약이 높으며, 문화·여가의 제약 점수가 70.7점으로 가장 높음
  - 친구·지인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1인가구 22.4%, 다인가구 15.6%로, 1인가구가 6.8%p 높음
  - 관계 유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1인가구 55.8%, 다인가구 49.9%로, 1인가구가 5.9%p 높음

○ 1인가구는 만남 횟수를 줄이기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만남 방식을 더 많이 선택

- 모임 횟수를 줄인다는 응답은 1인가구(25.7%)가 다인가구(31.3%)보다 5.6%p 낮은 반면, 무료·저렴한 장소(38.3%)와 산책·운동·무료행사(23.5%)를 활용하는 비율은 다인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1인가구가 경제적 부담에도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만남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교류 방식을 조정하여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
- 따라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 확충뿐 아니라 공원·도서관·주민센터 등 기존 생활권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확대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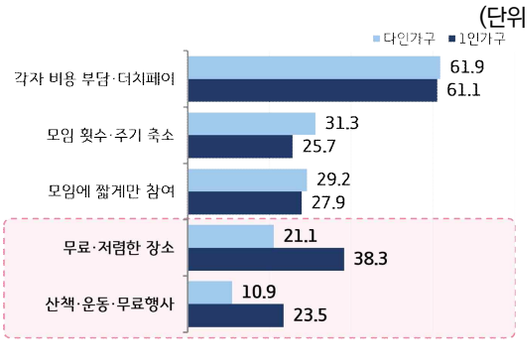
<가구형태별 활동 참여 제약>

(단위: 100점 만점(5점 척도 환산))



<가구형태별 비용 부담 시 관계 유지 방법>

(단위: %)



주: 관계 유지방법은 1인가구 기준 상위 5개 항목만 명시함

질문: 최근 1년간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고 싶었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 횟수를 줄인 경험이 있습니까?(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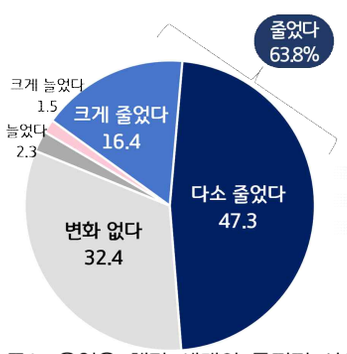
비용 부담이 있을 때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십니까?(최대 3개 선택))(선택값 합산한 결과 제시)

□ 비용부담으로 오프라인 만남이 줄었다는 응답은 63.8%, 감소 사유는 세대별 상이

- ○ 오프라인 만남 횟수 감소의 주요 이유는 소득 감소(29.8%)와 물가 상승(24.2%)임
  - 다음으로 고정 지출 증가(8.9%), 시간 부족(8.8%), 경제적 자립 지연(8.2%) 순
- ○ 청년층은 물가 상승,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소득 감소로 만남 횟수 감소
  - 청년층은 물가 상승(28.2%), 소득 감소(22.0%), 경제적 자립 지연(18.0%) 순임. 경제적 자립 지연은 중장년층(2.8%)과 노년층(2.9%)보다 약 6배 이상 높음
  - 중장년층은 소득 감소(31.9%)와 물가 상승(24.5%)이 주요 사유임. 관계 피로감은 9.5%로 청년층(2.3%)과 노년층(8.2%)보다 높음
  - 노년층은 소득 감소(41.9%), 경조사·회비 부담(17.2%), 물가 상승(13.3%) 순임. 경조사·회비 부담은 청년층(0.9%)과 중장년층(6.1%)보다 높게 나타남

<최근 만남 횟수 변화 및 감소 이유>

(단위: %)



구분	소득 감소	물가 상승	고정 지출 증가	시간 부족	경제적 자립 지연	자산 형성 우선	관계 피로감	경조사·회비 부담
전체	29.8	24.2	8.9	8.8	8.2	6.8	6.8	5.9
청년	22.0	28.2	9.1	8.7	18.0	9.8	2.3	0.9
중장년	31.9	24.5	8.4	9.6	2.8	6.6	9.5	6.1
노년	41.9	13.3	10.1	6.3	2.9	0.0	8.2	17.2

주1: 음영은 해당 세대의 특징적 사유,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주2: 기타 제외

질문: 최근 1년간 비용 부담 때문에 친구·지인과의 오프라인 만남 또는 모임 횟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① 크게 줄었다~④ 늘었다, ⑤ 해당없음)(n=958)

만남이나 모임 횟수가 줄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n=610)

□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각자 비용 부담 선택, 관계 유지 방법은 세대별로 다름

○ 관계 유지 방법은 각자 비용 부담·더치페이가 61.8%로 가장 높음

- 모임 횟수·주기 축소(30.4%), 모임에 짧게만 참여(29.0%), 무료·저렴한 장소(23.7%), 메신저·영상통화 등 온라인 대체(19.0%) 순

○ 청년층은 비용 분담과 참여 시간 단축, 노년층은 저렴한 장소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청년층은 각자 비용 부담·더치페이(69.1%)와 모임에 짧게만 참여(36.4%)가 세대 중 가장 높음
- 중장년층은 온라인 대체가 21.5%로, 노년층(20.8%)과 비슷하며 청년층(14.5%)보다 높음
- 노년층은 무료·저렴한 장소에서 만남(29.7%)과 집·공원·도서관·주민센터 활용(12.2%)이 세대 중 가장 높음

<세대별 비용 부담 시 관계 유지 방법>

(단위: %)

구분	전체	청년	중장년	노년
각자 비용·더치페이	61.8	69.1	59.9	50.7
모임 횟수·주기 축소	30.4	30.9	30.7	28.7
모임에 짧게만 참여	29.0	36.4	26.3	20.1
무료·저렴한 장소	23.7	24.7	21.3	29.7
메신저·영상통화 등 온라인 대체	19.0	14.5	21.5	20.8
산책·운동·무료 문화행사로 대체	12.8	14.1	12.4	10.9
집·공원·도서관·주민센터 활용	10.1	10.9	8.9	12.2
별도 활용 방법 없음	3.1	4.5	2.6	1.5

주1: 음영은 해당 세대의 특징적 대응 방식, 청년은 19~39세, 중장년은 40~64세, 노년은 65세 이상임
주2: 기타 제외
질문: 비용 부담이 있을 때에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십니까?(최대 3개 선택)(선택값 합산한 결과 제시)

□ 생활비 지원 수요가 가장 높지만, 실제 관계 유지에는 생활권 교류공간 활용

○ 수원시민은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을 우선 희망하며, 문화·여가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수요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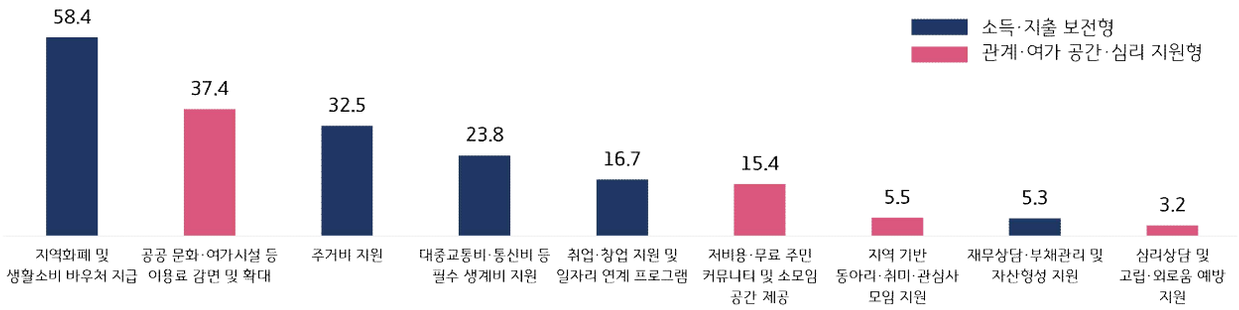
- 수원시민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한 항목은 지역화폐·생활소비 바우처(58.4%), 공공 문화·여가시설 이용료 감면·확대(37.4%), 주거비 지원(32.5%) 순임
- 특히 30대의 주거비 지원 수요는 44.7%로, 전체(32.5%)보다 12.2%p 높게 나타남

○ 관계 지원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는 낮지만, 실제로는 비용 부담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이 나타남

- 소모임 공간 제공(15.4%), 동아리 지원(5.5%), 심리상담(3.2%)에 대한 정책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반면, 수원시민의 23.7%는 비용 부담이 있을 때 무료·저렴한 장소에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54.7%는 외로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시민은 별도의 관계 지원사업보다 만남·여가에 드는 비용 자체를 낮추는 정책을 선호하며, 실제로도 저렴한 장소를 찾아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부담이 큰 집단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 공공시설을 생활권 교류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여가 소비가 함께 만나는 계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수요가 '새 공간 조성'보다 '비용 완화'에 쏠려 있다는 점은, 신규 시설보다 기존 시설·요금 구조를 관계 형성에 맞게 재설계하는 접근이 효율적임을 의미함

<수원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



주: 기타 제외

질문: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2순위 선택, 1,2순위를 합산한 결과 제시)

4. 요약 및 정책방향

□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관계 및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로

○ 생활비 부담은 소비 축소를 넘어 사회적 관계와 골목상권의 동반 위축으로 확산될 가능성

- 물가·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에 따른 생활비 부담은 세대·소득수준·가구유형별로 차이 발생
  - 청년층은 식비·교통비, 중장년층은 양육비·부채상환비, 노년층은 의료비·교제비 부담이 두드러지며, 저소득층과 월세 가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활비 부담의 항목과 수준이 집단별로 달라, 취약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 생활비 부담이 커질수록 필수적 지출보다 외식·여가·모임 등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소비를 우선 축소
  - 지출 축소 경험자가 줄인 항목은 외식·카페(73.7%), 문화·여가·여행(59.1%), 친구·지인 모임(46.8%) 순으로, 사회적 교류와 관련된 소비가 높은 비중 차지
  - 반면 주거(4.5%), 교육(8.1%), 저축(13.3%)은 상대적으로 낮아,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보다 선택적 소비를 우선 축소하는 경향 확인
- 관계 관련 소비 축소는 실제 사회적 만남 감소로 나타나며, 골목상권 소비 위축으로 확산될 가능성
  - 수원시민의 63.8%가 경제적 부담으로 오프라인 만남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50.8%는 관계 유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외식·카페·모임 지출 감소는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약하는 동시에 동네 식당·카페 등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의 소비 수요를 약화시킬 가능성
- 사회적 관계와 골목상권의 동반 위축은 지역경제 활력 저하와 일상적 교류 기회 감소로 이어질 우려
  - 지역 소비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상업시설 운영 위축과 일상적 만남 공간 감소로 이어져 주민의 사회적 교류 기회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
  - 소비 감소와 관계 위축, 지역경제 활력 저하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수원시는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부터 관계 소비 지원과 생활권 교류 확대까지 단계별 정책 개입 필요

-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 월세·저소득·노년층 등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주거비·식비·의료비 등 필수생활비 부담 경감
- (관계 소비 부담 완화) 외식·여가·모임 등 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 문화시설과 골목상권의 연계를 통한 지역 소비 활성화
- (생활권 교류 기반 확충) 도서관·지관서가·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공간을 활용하여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세대·가구유형별 교류 기회 확대
- (추진체계) '수원시 생활비 절감 추진단' 주도로 분야별 생활비 절감사업의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 및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성과관리 범위 확대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관계·골목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로>



□ (정책방향 1)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집단을 중심으로 생활비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월세·저소득·노년층 등 생활비 부담이 집중된 집단을 우선 지원하여 필수생활비 부담 경감

- 월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46.2%), 지출 축소 경험(94.5%), 주거비 지원 수요(47.6%)가 모두 높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
- 저소득층은 필수생활비 부담과 오프라인 만남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고, 노년층은 의료비 부담(47.6%)이 두드러져 집단별 부담 항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필요
- 지역화폐·생활소비 바우처(정책 수요 58.4%)는 기본 지원을 유지하되, 저소득·월세 등 취약집단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지원 방식 검토
- 기존 주거급여·월세 지원·의료비 지원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별 지원 정보와 신청 접근성 강화

❍ 필수생활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소비 여력 확보

- 주거·식비·의료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소비 조정 압박을 완화하고, 외식·여가·모임 등 사회적 관계 관련 지출의 과도한 축소를 예방
-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방향으로 확대

□ (정책방향 2) 외식·여가·모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와 사회적 교류 연계

○ 생활비 부담으로 우선 축소되는 관계 관련 소비의 부담 경감

- 외식·카페(73.7%), 문화·여가·여행(59.1%), 친구·지인 모임(46.8%)이 주요 지출 축소 항목으로 나타나, 사회적 교류에 필요한 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접근 필요
- 공공 문화·여가시설 이용료 감면·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37.4%)를 고려하되, 시설별 이용 여건과 대상별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검토
  - 서울시 '서울청년문화패스'처럼 관계 비용 부담이 큰 집단(학생·청년, 저소득층, 1인가구)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이용권을 검토하되, 정부 사업(청년문화예술패스 등)과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
- 공공시설 이용료뿐 아니라 교통·식사 등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권 내 문화·여가 접근성 개선

○ 문화·여가시설 이용과 골목상권 소비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수원시 박물관·미술관·수목원 등 기존 문화시설의 이용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 문화패스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검토
- 문화시설 방문이 인근 식당·카페 등 지역화폐 가맹점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상권 연계 혜택 및 공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
- 동반 할인·모임형 혜택 등은 관계 형성과 골목상권 소비를 함께 유도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실제 참여 증가와 소비 유발 효과를 평가

해외 '시설 지원' 사례 – 미국 뉴욕시 'Culture Pass'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무료 문화시설

- 미국 뉴욕시는 공공도서관 3개 기관과 협력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Culture Pass'를 운영
- 뉴욕공공도서관·브루클린공공도서관·퀸스공공도서관의 정식 도서관 회원증을 보유한 13세 이상 이용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뉴욕시 내 100개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식물원 등 문화시설에 무료로 입장 가능
- 소득에 따른 이용 자격 제한 없이 도서관 회원증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의 경제적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기존 공공도서관 시스템과 문화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여가활동 참여 비용을 낮추는 정책사례로 활용 가능

출처: 뉴욕 컬쳐패스 홈페이지(https://www.culturepass.nyc/)

□ (정책방향 3) 기존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일상적인 만남과 사회적 관계 유지 지원

○ 생활권 내 공공공간을 활용한 접근성 높은 교류 기회 확대

- 수원시민의 23.7%가 비용 부담 시 무료·저렴한 장소를 활용하며, 특히 1인가구(38.3%)와 노년층(29.7%)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 도서관·지관서가·주민센터·경로당 등 기존 생활권 공간의 이용 정보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민이 집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규 시설 확충보다 기존 시설의 운영시간, 공간 활용, 프로그램 접근성 등을 개선하는 방안 우선 검토
- 시민의 54.7%가 외로움을 경험한 점을 고려해, 서울시 '서울마음편의점'처럼 전문 상담기관보다 문턱이 낮은 생활권 쉼터·교류 기능을 기존 공공공간에 부여하는 방안 검토

국내 '생활권 교류공간' 사례 - 서울시 '서울마음편의점'·'서울잇다플레이스

-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2025년 3월부터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가진단·상담·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
- 라면 등 간단한 식품과 건강기구를 비치하고 지점별 프로그램·커뮤니티 참여를 연계하는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2025년 4개소에서 2026년 19곳으로 확대
- 2026년 9월에는 성동구에 광역 거점 '서울잇다플레이스'를 개관해 청년마음편의점 1호점, 교류·문화 공간, '외로움안녕 120' 대면상담을 한곳에 결합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분야 누리집,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운영」(2026.7.30. 수정); 내 손안에 서울(2026.10.6.), 「외롭거나 마음이 지칠 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서울잇다플레이스' 개관

❶ 세대·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지원

- (청년층) 물가 상승과 경제적 자립 지연에 따른 교류 부담을 고려하여 퇴근 후·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여가 및 소규모 교류 프로그램 확대
- (중장년층) 양육·돌봄과 고정 지출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 단위 참여와 저녁·주말 프로그램 연계
- (노년층) 소득 감소와 경조사비 부담을 고려하여 경로당·복지관 등 근거리 시설 중심의 교류활동 지원
- (1인가구) 비용 부담에도 저렴한 장소와 활동을 활용하여 관계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고려해 공동식사·소모임 등 기존 프로그램과 자율적인 후속 모임 연계

국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례 - 서울시 '1인가구 소셜다이닝'을 통한 맞춤형 네트워크의 장

- 서울시는 1인가구의 건강한 식생활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씽글벙글 서울'이라는 단독 플랫폼을 운영, 청년층 대상 '건강한 밥상'과 중장년층 대상 '행복한 밥상' 서비스 제공
- 19~39세 청년과 40~67세 중장년 1인가구를 구분하여 맞춤형 요리교실·공동식사·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26년에는 총 4,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
- 특히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참여자 3명 이상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하면 식재료비를 최대 2회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
- 2025년에는 4,702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만족도는 95%로 나타남.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과 후속 소모임 지원을 결합한 맞춤형 사회적 관계 지원사례로 활용 가능

출처: 씽글벙글 서울 홈페이지(https://1in.seoul.go.kr/)

SRI 시민패널조사 개요(2026년 3/4분기)

조사목적 : 시정 만족도, 생활비 부담과 사회관계, 수원시 내 사회갈등 및 사회포용 등 조사를 통한 현안 파악
조사대상 : 수원시정연구원 패널 3,810명(유효표본 958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표본오차±3.16%p
조사방법 : 온라인조사
조사시기 : 2026.09.14.~09.18.(5일간)
조사내용 : 생활비 부담과 사회관계, 사회갈등 및 사회 포용 등